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내일 상영작 2편

영혼과 교감하는 여성 그녀에게 보내진 의문의 문자메시지

-퍼스널 쇼퍼-

냉전 · 현대 넘나드는 세 남녀의 기억과 사랑

-플링 스노우-



전 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 제작소, 4층)은 프랑스 대표 시네아스트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고스트 드라마 '퍼스널 쇼퍼'와 잊갈린 사람과 기억을 그린 '플링 스노우'를 9일 상영한다.

'퍼스널 쇼퍼'는 영혼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닌 여자주인공 모린의 의문의 존재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서스펜스를

다른 작품이다.

영화 트와일라잇,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카케 소사이어티 등으로 국내에서도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크리스틴 스투어트가 할리우드가 아닌 프랑스 영화에서 첫 단독 주연을 맡아 관객들과 만난다.

이는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에 이어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과 크리스틴 스투어트가 다시 한 번 호흡을 맞

춘 작품으로 제69회 칸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플링 스노우'는 냉전 시대 속 세 남녀의 사랑과 긴장감 넘치는 스파이 스캔들을 담은 작품이다.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인 사뮈엘 비르가 직접 쓴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영화는 1959년과 1992년 두 시대를 넘나들며 세 사람의 기억과 사랑을 세밀

한 연출력으로 그려낸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잔혹한 시대를 배경으로 스파이이라는 소재 특유의 속도감과 긴장감에 애뜻한 러브스토리를 더해 관객들을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ff.or.kr)를 참고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FIFA U-20 월드컵 성공 개최 기원합니다'

전주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16일 오후 한국소리문화전당서

전주시립국악단은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207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무대는 'FIFA U-20월드컵 코리아 2017'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신년음악회를 겸한다.

공연에서는 궁중무용의 반주음악인 '보허자'와 풍류음악인 '천년만세', 궁중연례악인 '만파정식지곡',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태평무', 관악합주 '내풍류' 등을 선보인다.

'보허자'는 허공을 걷는 사람으로 신선 같이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는 것을 뜻한다. 악곡 명에서 느낄 수 있듯이 느린 호흡으로 세상의 흐름을 같이 하고 자연과 더불어 태평시절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이상을 담았다.

'천년만세'란 오래살기를 기원하는 의미

가 담겨 있으며 영산회상과 함께 조선시대 선비들에 의해 사랑받아서 주로 연주되던 풍류음악이다.

'만파정식지곡'은 궁중연례악의 하나로 임금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 및 개신 때 연주하던 곡으로 대취타의 태평소 가락을 2도 높이고 가락에 변화를 줘 관현악으로 만들었다.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은 심청의 지극한 효심으로 심봉사가 눈을 뜨고 더불어 잔치에 모인 모든 맹인들이 함께 눈을 뜨는 축제 분위기의 대목이다.

'내풍류'는 관악합주 편성의 고유개념이자 특정 악곡의 곡명으로, 대금·피리 등의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합주를 말하며 이번 공연에서는 새롭게 가아금이 결합되어 있다. 인간의 축제에서 축하행렬이나 연회

에서 자주 연주된다.

무대에서는 국악단의 연주에 맞춰 전주시립무용단의 공연도 이어진다.

'태평무'는 왕실의 변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기 위해 왕비 또는 왕이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화려한 공연의상 뿐 아니라 장중하면서도 빠른 발놀림이 눈길을 끈다.

빠른 걸음으로 복잡한 장단을 경쾌하게 가로지르는 발 디딤과 장단과 어울려 장단 사이사이에 발로 원을 그리며 돌리고 굴리는 기교적인 발짓은 태평무만이 가진 멋이다.

입장권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

공연예매는 나투컬처 홈페이지(www.natuculture.com) 또는 전화(1522-6278)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정월대보름, 자연휴양림서 즐기자

10일 덕유산 자연휴양림서 민속놀이 체험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는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보름맞이 전통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놀이 체험행사는 휴양림에서 직접 제작한 널뛰기, 제기, 윷, 투호 등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힐링 하시면서 새해의 밝은 소원을 빌어볼 수 있는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정월대보름에는 휴양림 인근 마을 부녀회에서 농악놀이, 달집태우기 등 대보름 전통체험 행사가 이루어지며 부모님들에게는 동심속의 추억을 되새기는 기회를,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자녀들에게는 전통놀이를 통해 우리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

덕유산자연휴양림(팀장 안홍근)은 이번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숲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용객 여러분이 즐겁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산림휴양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우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부안예술회관, 올해 문예회관 공연·전시 기획프로그램 선정

부안예술회관이 2017년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문예회관 공연·전시 기획 프로그램'에 선정돼 4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문예회관 공연·전시 기획프로그램은 지역 문예회관의 기획역량 강화로 지역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는 한편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복지 정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부안예술회관은 전시 기획프로그램으로 '3인 3색 결작 전'을 올 상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김정숙·곽수봉·이광희 작

가 등 중견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부안을 대표하는 자연만찬 부안의 의미를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공연 기획 프로그램은 '2017 판타스틱 페스티벌'을 주제로 가정의 달인 5월부터 휴가철인 7월까지 총 6회 공연이 펼쳐진다.

클라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40인조와 포스댄스 컴퍼니 15명의 무용수들이 '판타스틱 뮤지엄'과 '판타스틱 정글'을 선보일 계획이다.

두 작품은 현대무용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현실에서 만나는 판타지 작품들이 판타지의 벽을 허물고 관객과

현실에서 만나 즐거움과 환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예술회관이 준비한 여러 가지 공연과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군민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선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올해부터는 인터넷 예매를 실시해 더욱 쉽게 티켓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부안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예술회관은 부안군민들에게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상주단체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전주 디자인 크래프트 참가자 모집

전주시가 주최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주관하는 '전주 디자인 크래프트 캠프'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주 디자인 크래프트 캠프는 오는 20일 ~ 28일 열리는 '전주 핸드메이드씨티 워크 2017'의 일환으로 전주가 핸드메이드 문화 거점으로 발돋움 하는데 필요한 국내 경제 경쟁력을 갖춘 공예 디자인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은 강의 및 토크쇼·참가자 네트워킹·전문가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는 디자인·공예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시간을 갖는다.

교육대상은 공예·디자인 분야 종사자 20명 내외참가신청은 오는 12일까지 E-mail(hcj_2017@hanmail.net)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2월 8일>



▷쥐띠

48년생: 매사를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하는 운.
60년생: 동서남북으로 분주한 운이나 하는 만큼의 결과와 있으니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7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84년생: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나가기만 해결된다.



▷소띠

49년생: 문서운이 들어왔으니 좋은 문서를 발견하게 되거나 가질 수 있는 운이다.
61년생: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상의 도움을 받아라.
73년생: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나 큰 재물이 아니다.
85년생: 다른 사람의 일에 흔들리지 마라.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



▷호랑이띠

50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2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므로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니 주의하라.
74년생: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운이다.
86년생: 하고자 하는 것마다 바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운이다.



▷토끼띠

51년생: 재물에 탐욕이 지나치면 재앙이 발생하니 주의하라.
63년생: 구설수로 인해 마음 고생할 수 있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하라.
75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진전이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87년생: 자신만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게 될 운이니 주의하라.



▷용띠

5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불화가 예상된다.
64년생: 태안이 밝게 떠오르는 상이나 노력만 수반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76년생: 부부 사이 또는 연인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
88년생: 도의를 사함을 만나게 되니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라.



▷뱀띠

53년생: 작은 일에 대한 성취는 가능하다.
65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고 타인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 주의하라.
77년생: 처음에는 좋으나 후반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89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뒷사람의 도움을 받아라.



▷말띠

54년생: 주변의 상황이 어지러우니 큰 변화나 육성은 금물이다.
66년생: 지나친 자신감은 실수를 불러오니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8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날이다.
90년생: 작은 것에 만족하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



▷양띠

55년생: 지나친 과로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운이다.
67년생: 다른 사람과의 금전거래에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돈 잃고 사람 잃으니 조심하라.
79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뒷사람의 도움이 따른다.
91년생: 동성보다는 이성의 조언을 따라라. 좋은 결과가 있겠다.



▷원숭이띠

56년생: 사고수가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68년생: 대의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이 좋으며 명분이 있어 뒤돌아보는 운이다.
80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9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박력이 많이 따르니 매사에 주의가 필요하다.



▷닭띠

57년생: 지나친 자기주장으로 인해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때.
6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주의하라.
81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끈고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운이다.
93년생: 일의 능률이 올라갈 운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진행하라.



▷개띠

46년생: 경쟁자로 인해 신경을 많이 생기니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58년생: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뒷일을 생각하라.
70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82년생: 처음에는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돼지띠

47년생: 금전운이 좋지 못하니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투자를 감행하는 일은 삼가라.
59년생: 타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운이다.
71년생: 겉은 화려해 보이는 듯하나 속은 허하니 내실에 집중하라.
83년생: 다른 사람과의 의견충돌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주의하라.